

# 태안해안지회 「해안 정화 및 외래식물 제거 활동」 실시

태안해안에는 570여Km의 해안선을 따라 30여 개의 해수욕장이 있다. 작년 사상 초유의 원유유출사고로 인해 아름다운 우리 해안이 황폐화 될 위기에 처했으나 우리 국민의 끈끈한 봉사심과 지역인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차츰 회복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. 태안해안지회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기름제거활동을 실시하였으며, 환경정화 및 생태 보존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. '한국자연공원협회 태안해안지회'는 매년 8월 15일을 기해 피서철이 지난 우리공원 내 해수욕장에서 회원 가족 동반 환경정화 및 외래식물 제거활동을 실시 해 왔다. 올해는 8월 15일(금) '태안해안국립공원' 중 태안군 남면 소재 몽산포 일원 달산포해수욕장 에서 환경정화 및 외래식물 제거활동을 실시했다. 이날은 가정목(서산경찰서) 지회장을 비롯한 회원 및 가족 32명이 참석하여 회원 가족 상호간 우의를 다지면서 환경정화 및 외래식물 제거 등 의미 있는 활동을 했다. 특히 '국립공원관리공단 태안해안사무소' 소장 및 직원들도 함께 참석하여 국립공원 보호 정보 교환 및 상호 유대대 강화로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.

## 가. 해안 정화 활동

다행히 해수욕장은 기름띠가 거의 제거되어 올해에도 많은 피서객이 내방하였다. 해마다 피서철이 끝난 우리공원지역 해변은 온갖 쓰레기로 몸살을 앓기 마련이다. 이번에는 몽산포 달산포해수욕장에서 쓰레기수거 활동을 실시하였다. 수거한 쓰레기들 중 과자 및 병과류 봉지가 가장 많았고 주류 병, 음료수 병, 부탄가스, 반찬용기 등 주로 피서객들이 버린 생활 쓰레기가 대부분이었고, 특히 해안 송림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섞어 악취가 풍기는 등 피서객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국립공원 보호차원의 단속과 계도활동도 강화되어야 함을 느꼈다.



변의 다른 식물의 생장을 파괴하는 피해를 주고 있어 제거 대상이다.

우선 자연해설가(부지회장 이종환)의 외래식물과 피해 및 제거 방법에 대한



설명을 듣고 제거활동에 들어갔다. 무더운 날씨에 힘든 일이었지만 모두가 자발적인 봉사심으로 참여하였다. 피해지역이 워낙 광범위하여 비록 일 부분 작업했지만 작업 전 노란색 일색이었던 사구지역이 작업 후 푸른색을 되찾은 모습을 보고 환경보존에 일조하였다는 뿌듯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. ▲▲

## 나. 외래식물제거 활동

외래식물종은 국립공원 내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고유식물 자원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. 작년에도 기지포에서 제거활동을 실시했지만 외래식물이 해가 갈수록 우리 해안에 급격하게 확산되어 이제는 모든 해안에 퍼져있어 사구식물 및 토종 식물 보존 차원에서 대대적인 제거 활동이 시급한 실정이다. 이번에는 달산포 해수욕장(태안군 남면 소재) 주변 사구지역에서 달맞이꽃 제거 활동을 실시하였다. 달맞이꽃은 바늘꽃과의 두해살이풀로 굵고 곧은 뿌리에서 여러 개의 대가 나와서 높이 50~90cm 까지 곧추 자란다. 꽃은 7~8월에 피며 황색이다. 꽃잎 자체는 관상적인 가치가 있지만 워낙 번식력이 강하고 형태가 거칠며 한 그루가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 주

